

“화합·열린 소통으로 선진 체육행정 구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공약과제 16개 중 6개 추진 달성
생활체육지도자 83명 호봉제 도입
광주·대구아게임 공동유치 추진
초·중·고 체육시설 전면 개방 유도

“화합과 소통을 통한 선진 체육 행정 추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달 26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은 전갑수(사진) 광주시체육회장이 밝힌 체육회 운영 방향이다.

전 회장은 지난 100일간 관내·외 각종 행사 참여와 대회를 참관·격려하고 시체육회 관리 체육시설을 순회하며 종목단체 임직원을 비롯한 동호인, 선수, 지도자들과 소통·화합을 강화해 왔다. 또 민선 2기의 16개 공약과제 중 6개를 추진하는 등 광복 행복보 공약 이행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 최초로 광주 5개 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83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시행했다. 단일임금제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보전하며 호봉제를 도입하고 급식비 등을 인상했다.

전 회장은 “학교, 체육시설 등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호봉제를 도입했다”며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와의 적극적인 행정 협의를 통해 시비 증가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체육 행정의 선진화 기틀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임원(이사)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화하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대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임원들의 위상을 세우고 존경받는 체육인으로 광주체육발전에 노력하는 분들을 보강해 선진 체육 행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며 “종목단체 전무이사 협의회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는 초석도 다졌고 전무이사 월정활동비 증액과 전국체전 종목 전문체육지도자 인원 증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도 나섰다. 전 회장은 지난 3월 29일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광주·대구시체육회 관계자 등과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아시안게임 개최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대한체육회 합동 워크숍 및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에 참석해 “아시안게임 유치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체육대회 광주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회장은 “체육인프라 확충과 지방 체육발전을 위해 전국체육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는 지난 2007년 10월 제88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후 16년이 지났다. 광주 전국체전 유치는 스포츠 활성화를 바라는 광주체육인들의 염원으로 광주시와 대한체육회 등 다각적인 채널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움직였다. 전 회장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도록 해 현재 초·중·고 체육관 개방율이 97.7%에 육박하고 있다. 학교 체육시설의 전면 개방은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활발해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지정스포츠클럽 공모를 통해 광주형스포츠클럽을 확대, 학교·생활·전문체육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2025년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도 다할 계획이다.

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광주체육장학재단 설립 및 대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재정자립을 위한 체육진흥 조례개정 등의 실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고 다짐했다. 최동환 기자

“전문·생활체육 강화 전남체육 도약 온힘”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조직 안정화 위한 균형있는 인사
태권도단체 정상화 합의 도출 기여
실업팀 창단으로 연계 육성 강화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만전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체육회로 거듭나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난달 26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은 송진호(사진) 전남도체육회장이 그간의 소회와 체육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송 회장은 전남체육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문화 △체육행정 △체육복지 등 5개 분야의 추진방향을 단기·중기·장기 등 세부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송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조직의 안정과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집행부를 새롭게 꾸렸다. 민선 2기 이사진인 만큼 화합·소통을 통한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

균형있는 인사를 통해 학교·전문·생활체육의 조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종목단체 회장선임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고루 등용해 다양한 의견과 소통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담았다.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도 증설했다. 국제스포츠문화교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지역스포츠산업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등 기존 11개였던 위원회를 5개 추가확대해 16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송 회장은 우선 전문체육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 체육 미래를 위해 한국체육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태권도 양단체의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우수선수 확보와 연계육성 강화를 위해 ㈜서영 여자검도팀을 창단하고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팀 창단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레슬링·수구(전남체육회), 육상(진도군), 복싱(목포



시) 등 4개의 실업팀을 창단했다.

그는 “실업팀 창단으로 전남체육의 오랜 숙원사업인 초·중·고·대·실업팀의 연계육성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며 “우수선수 확보로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송 회장은 “도내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총 45개 프로그램을 확보 국비 12억2200만 원을 확보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힘을 보탬은 은퇴선수, 직장선수, 지도자 및 생활체육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들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해 목포대와 MOU를 통해 평생교육원에 학위 취득을 위한 수업 개설에 앞장섰다”며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직장팀 창단 추진과 도민의 1인 1운동 갖기 정착을 위한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육성 및 대회 지원,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스포츠클럽 확대 운영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또 오는 10월 15년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 그는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전국종합체육대회준비단을 신설·운영해 경기용기구 구입, 경기장 공·승인 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체육시설 인프라를 통해 전국·국제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체육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송 회장은 “단기적인 2023년도 목표를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목표와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다음 시즌엔 우승 향해 뛰겠다”

2022~2023시즌 평가회

정규리그 2위·포스트시즌 3위
강경민 MVP·박조은 골키퍼상
구단 새 버스 증정식도 가져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선수단이 다음 시즌엔 우승을 노리겠다고 다짐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을 관리 운영하는 광주시체육회는 1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2022~2023시즌 SK핸드볼코리아리그 평가회를 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평가회에는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 정민곤광주도시공사사장, 주삼자광주시핸드볼협회 부회장, 핸드볼 선수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평가회는 2022~2023시즌 성과 보고, 선수 개별 전력 보고, 시즌 총평, 선수단 운영 개선 방안, 향후 발전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시즌 초반부터 2라운드 막판까지 13경기 무패 행진(11승 2무)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1위를 달리다 서아루, 원선필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선수단 등이 1일 광주시체육회관 앞에서 새로운 선수단 버스 증정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결국 2위로 정규리그를 마쳤다. 플레이오프에서도 부상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3위 부산시설공단에에게 져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정규리그 2년 연속 2위와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은 박수받을만한 성과다.

이번 시즌 선수들의 개인 활약도 뛰어났다. 강경민이 득점 1위(195골), 어시스

트 2위(109개)를 차지하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돼 개인통산 3번째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조은은 21경기에서 방어율 41.5%로 골키퍼 부문 1위를 기록했고 베스트7 골키퍼 부문도 수상했다.

오세일 감독은 이날 평가회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목표로 힘껏 뛰었으나 예상치 못한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우승컵

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고맙고 대견하다”며 “다음 시즌에는 부상을 치료한 선수들이 복귀할 것인 만큼 우승을 목표로 달려보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2억여원을 들여 구입한 버스를 선수들에게 증정하며 다음 시즌 선전을 응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청 손현호, 4년 연속 문곡서상천배역도 ‘3관왕’



광주시청 손현호(24·사진)가 제82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 대회에서 금빛 바벨을 번쩍 들어올리며 이 대회 4년 연속 3관왕을 차지했다.

손현호는 1일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81kg급에서 인상 150kg, 용상 187kg, 합계 337kg을 들어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손현호는 인상 1 시기에서 142kg을 들어올린 뒤 2차시기에서 150kg을 실패했으나 3차시기에서 150kg을 성공시켜 1위를 차지했다.

용상에선 1차시기 182kg, 2차시기 187kg을 기록하며 1위를 확정된 뒤 3차시기 195kg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합계에서도 337kg으로 1위에 올랐다. 손현호의 용상과 합계 기록은 대회 신기록이다.

이로써 손현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 대회 4년 연속 3관왕을 달성, 이 체급 최강 역사로 군림했다.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올해 광주시청에 입단한 김담비(24)는 여자일반부 55kg급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최동환 기자